

제26회 삼인문화 기념행사

순창문화원, 강천산군립공원 내 삼인대서 거행

순창문화원(원장 최길석)은 지난 28일(음력 7월 29일) 강천산군립공원 내에 위치한 삼인대에서 제26회 삼인문화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조선 중종 때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를 위해 대의를 지키고자 했던 순창군수 김정, 담양부사 박상, 무안현감 류육 등 삼선생의 선비정신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순창문화원이 주관하고, 순창군과 순창군의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장익 순창군의회의장, 오은미 전라북도의회 최길석 순창문화원장, 박종률 삼인대보존회장, 나종우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장과 도내 14개 시군 문화원장, 삼인대 관

련 5개 종중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식전행사로 육전고를 대취타, 시조, 민요,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지면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제2부 기념행사는 순창문화원 인영수 이사장의 사회로 내빈 소개, 서한복 순창문화원 부원장의 대회선언과 국민이례, 순창문화원 임원 3인의 상소문 낭독, 최길석 문화원장의 대회사, 최영일 군

수의 기념사, 신장이 의장의 축사, 나종우 연합회장의 격려사, 박종률 보존회장과 각 종중 대표들의 인사말을 끝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최길석 순창문화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뜻 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시길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199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삼인문화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행사를 계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아 선현들의 선비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날 기념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인대 선현들의 도덕적 유산관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준비하신 순창문화원과 삼인대보존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 정철성 의원이 26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실역에 KTX 열차 정차할 수 있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임실역 KTX 열차 정차 가능케”

정철성 임실군의원, 5분 자유발언서 제언

임실군의회 정철성 의원이 26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실역에 KTX 열차가 정차할 수 있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철성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임실군은 전라북도 대표축제인 임실 치즈축제와 아쿠아 페스티벌, 장미원 등 사계절 축제 및 지역축제인 오수 의견문화제, 관촌 사선문화제 등이 있어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군부대인 35사단에는 연 20회 이상의 신병 수료식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가족 및 연인·친지 등이 신병 입소식 참여와 면회를 위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을 언급했다.

게다가 그동안 멀리서 바라만 봤던 옥정호 붕어섬이 사계절 관광공원으로 화제화하지 않는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을 전망이다. 또한 강진면 호국원에 연 55만명 이상 인원이 묘소참배와 추모를 위해 임실군을 방문하고, 오수면 국제인양장 과 청용면 도립 사격장 등에 각종 체육행사 유치 등으로 연간 약 1,0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역적으로는 순창군 진안군 정읍시 등과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서 KTX가 정차하는 임실역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철성 의원은 "하루빨리 임실역에 KTX가 정차하여 우리 임실군민과 35사단에 입·퇴소하는 장병들 그리고 축제 및 각종 대회와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인들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다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저소득 청소년 대상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남원시는 지난 22일부터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 1억70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래가구(청년+가구+부모)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단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가 시행하는 등

일사업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양근식 남원시 건축과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지 않는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식품 미국 수출 본격화

임실군이 과수가공사업장 운영을 통해 올해 과수가공품 등의 미국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28일 임실 과수가공사업장에서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 농협 군지부장, 임실농협?오수관촌농협 조합장 임신평(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 농식품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은 임실군과 과수가공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임신평영 농조합법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임신평(영)은 임실군의 주요 자원인 복숭아 등 과수를 활용한 가공식품

을 생산하고 있다. 매년 식품박람회 및 식품산업대전 참가를 통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수가공상품은 3월에 10톤을 미국으로 수출해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에 두 번째 수출로 이어졌다.

이날 상차된 품목은 과수가공사업장에서 생산한 과일즙 18톤과 임실군조합공공사법법인 쌀 8톤 등 총 26톤이다.

과수가공품 수입업체 (Seawon Greenlife)를 통해 임실 쌀이 첫 수출품에 따라 임실 쌀이 해외시장이라는 새



로운 판로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되는 과일즙과 쌀은 미국 동부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하반기 미국에 과일즙 20톤을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미국 수출을 통해 임실군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농기센터, 서울 창농·귀농 박람회 참여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에 참여하여 귀농귀촌 지원정책 소개와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고 순창군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순창군은 박람회에 참여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상담에 적극 대응했으며, 박람회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순창군은 농촌정착 지원사업과 순창군민의 차별화된 '청년실업농장', '순창에서 한달 살아보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청년실업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군이 보유한 토지를 교육장소로 활용해 파종 관리, 생산, 가공, 판매 등을 직접 체험하며 농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영농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순창에서 한달 살아보기'는 순창에서 한달동안 미리 살아보면서 농촌체험 및 지역 내 관광지를 여행하고 경험하면서 추후 순창으로 정착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18여건, 42명의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